▮ 2010. 9. 19 ▮ 통권 제 11권 제 8호 2020년 12월 호

가나안 이야기

약속의 땅을 향한 행복한 동행

‘2020년 12월 마지막 주를 보내며…’

연말을 맞아 저희 유대인 사역팀(JCMT)도 올 한해를 되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년에 저희 팀은 **교회개척(가정교회)**에 저희 팀의 역량을 한데 모으고 또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한 사람으로 시작될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복음 전도와 영혼 사랑의 섬김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교회 개척이라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 저와 팀이 먼저 하나되고 또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연말 연초가 되면 다시 비자갱신을 해야합니다. 내년 1월 8일 저희들의 비자가 만료돼서 다시 갱신을 해야 하는데 비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은 비자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재확산과 변종으로 인해 당분간은 외국인들의 입국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에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3,000명 이상 나오면서 오는 27일(일요일)부터 다시 3차 전국 봉쇄가 2주에서 3주 가량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루속히 봉쇄와 제한이 풀리고 또 원활하게 비자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현장 사역 이야기’

성탄의 계절을 맞아 이웃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성탄을 맞아 베두인 마을에 방문해서 특별한 선물을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한 동역자의 섬김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작은 선물들 그리고 마스크와 땔감을 구입해서 전달하고 왔습니다. 아이들이 추워진 이 계절을 보내고 있지만 누군가의 섬김으로 인해 조금은 더 따뜻해질 수 있음이 섬기는 자들에게도 성탄의 기쁨과 행복감을 더해 주었습니다.

이번 방문 간에 ‘함마드’ 가 이틀전에 넘어지면서 바위에 무릎을 나쳤는데 상태를 보니 병원에 가야할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아버지 ‘이브라힘’에게 병원에 왜 데리고 가지 않았느냐 물으니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지구가 봉쇄되면서 병원에 갈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해서 한 동역자에게 연락해서 치료약을 도움받아 간단하게 소독하고 약을 발라주기는 했지만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함마드’가 염려가 됩니다. ‘함마드’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12월 이 계절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예수님 탄생한 ‘성탄절’로 인식 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하누카’ 의 계절입니다. 유대인 지역 어디에도 그 흔한 크리스마스 트리 하나 찾아볼 수 없고 성탄의 분위기 또한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도 몇몇 아랍 마을에 가면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지만 유대인 지역 내에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 성탄절에 노인센터 어르신들에게 성탄절의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초콜릿을 구입해서 모두에게 하나씩 나눠주며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쁘게 받아주셨고 또 저에게도 급조된 선물을 전하며 성탄의 인사를 서로가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와 함께 초콜릿을 전했는데 어르신들 사이에서 서로가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아느냐며 서로 이야기 나누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유대인 어르신들 입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이 ‘예수님’ 그 이름의 참 의미인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비대면 연합전도

동역자들과 QR 전도카드를 이용한 비대면 전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한국 라면들

감사하게도 요즘은 이스라엘에서도 다양한 라면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함마드의 오른쪽 다리

며칠전 함마드가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쳤지만 봉쇄로 병원에 갈 수 없습니다.

성탄 초콜릿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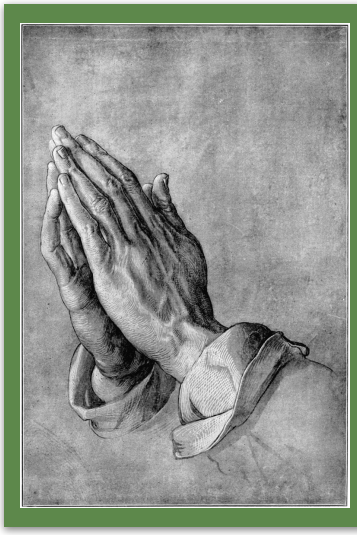
어르신들이 초콜릿으로 전한 성탄의 기쁨을 반갑게 받아 주셨습니다.

'가족 살아가는 이야기'

샬롬! 갈릴리에서 문안드립니다. 평안 하시지요? 연말 연시 그리고 곧 찾아올 성탄절을 맞아, 가정과 교회와 생업터 위에 따뜻함과 훈훈함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2020년 올 한해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저와 저희 가정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섬김 그리고 기도 덕분에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 한해는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마무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삶에 크고 작은 변화들에 적응하며 그때 그때 대처해 나가기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비록 너나할 것 없이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그래도 올 한해를 살아가게 하시고 또 지켜주신 하늘 아버지의 돌보심과 신실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해는 그 어느때보다도 함께 모여 나눔으로 더 풍성하고 또 따뜻했던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것이 낯설고 또 어색한 시기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대면' 접촉과 만남의 장이 확대되면서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점점 편해지고 또 익숙해지더군요.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고 있음이 서로를 향한 배려로 이해될 때쯤 저 자신이 오히려 다가가는 것이 불편하고 혹시 모를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섬김에도 사역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름의 방법을 찾다보면 할 수 있는 일들과 꼭 해야 하는 일들이 떠오르고 올해가 다 가기전에 못다한 일들을 실천하려 합니다. 해서 요즘은 가족들과 야외 활동도 하고 한동안 만나지 못했던 이웃들도 찾아가 만나려고 합니다. 물론 마스크를 착용하고 상대방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요… 다시금 서로간에 만남이 자유롭고 교제가 편안한 시기가 찾아오길 기도합니다. 비록 그런 시간이 더디 오더라도 그 속에서 나름의 역할과 해야할 일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2021년 새해 여러분 저희 가정과 여러분 모두에게 뜻 깊은 한해 소망의 한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늘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 기도제목 」

1)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진행되고 있는 모든 모임과 만남 가운데 은혜를 더하소서
2) 함마드의 무릎이 잘 치료되고 회복 될 수 있도록
3) '다비드'의원쪽(눈과 머리)의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 될 수 있도록, 더불어 가정들 모두 이 계절(우기)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4) 1월 8일 비자가 만료되는데 문제 없이 갱신할 수 있도록
5) 이스라엘 전국 봉쇄에 따른 제한된 생활과 사역이 속히 풀릴 수 있도록

Motto : ' 무릎으로 살아가며 성령에 민감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가라하면 가고 하라하면 행한다. '

「 후원정보 」

- 일반헌금: 다비드/하다스(담희,단아,도하,다온)
- KEB 하나은행 : 181-04-01159-983
- 예금주: 침*해*선(정재석) / TEL : 02-3775-4471

- 목적헌금: 코리엘
- KEB 하나은행 : 990-007955-919
- 예금주: 침*해*선(정재석) / TEL : 02-3775-4471

1) 재정담당 : 최은섭 (010-5334-7856),
E-MAIL: 0903ces@naver.com
2) 문서담당 : 박은성 (010-3745-2025),
E-MAIL: mindlle-1@hanmail.net

「 연락처 」

- 현지주소
JAESUK JUNG
P.O.Box 363, Poriyya Illit, Galil Tachton, 1520800, Israel
Phone number: +972(0)586623513

- 인터넷 전화: +82 (0)70-86320432
- E-MAIL: korielpro@gmail.com
- 카카오톡 ID: magendavid77
- QR코드: